

2018 · 07



암환우와 그의 재환을 돕는

호스피스 투데이 HOSPICE TODAY 호주호스피스협회

(Kor) www.sydneyhospice.com.au • Email: australianhospice@gmail.com • Mob: 0430 370 191 / 0416 758 272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 (Eng) www.australianhospice.com.au

암환우와 함께 바닷가 걷기 소풍(Cronulla Beach June 2 2018)(위)
제23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Uniting Thomas Roseby Lodge, Marrickville, NSW, June 18 2018)(아래 좌)
크로마 히프 연주에 맞추어 환우와 함께 춤 추는 치료현장 - 김옥경(Leader) 김진숙(conductor) (아래 우)



이달의 말씀(The Word of God):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71편 18절) Even when I am old and gray, do not forsake me, O God, till I declare your power to the next generation, your might to all who are to come.(Psalms 71:18)

월간 • 통권 11호
(Vol. NO. 11)

Address: 29 Clanalpine St. Eastwood NSW 2122, PO BOX 615 Lidcombe NSW 1825/ Publisher: Rev. Jang Dae Kim



암환우와 그의 제학을 돕는

호스피스 투데이 HOSPICE TODAY

2018

07

C · O · N · T · E · N · T · S

- 02 일상 속 영성을 만날 수 있는 곳, ACC 호스피스
- 06 ACC 호스피스 활동
- 07 회계 자료

표지 사진설명



지난 6월 2일 토요일 암 환우와 함께 바닷가 걷기 행사는 Cronulla Beach 로 소풍을 갔다.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하였고, 기차의 한 칸을 가득 메웠다. 시드니에서 약 1시간 반 정도 기차로 가서 Cronulla Beach 에 도착하니 비는 오지 않고 바람이 불었는데, 파도타기를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인생의 파도가 몰려 올 때 그 파도를 즐기는 사람이 되리라고 다짐하며 모든 참석자들이 한 마음으로 가져온 음식을 나누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6월 18일에는 Marricville 에 있는 Uniting Thomas Roseby Lodge 에서 특별초청으로 제23차 콘서트를 가졌다. Chroma Harp 연주(You are my Sunshine)와 함께 모든 봉사자들이 환우들과 함께하는 치유 행장은 성령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다. 특히 색소폰 연주(김덕임-Besame Mucho)와 함께 노래 부르며 흥겨워 하는 환우의 모습 속에서 내적 치유를 느낄 수 있었다. 모든 봉사자들이 자신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환우들과 함께 하는 행복찬 한 마당이었다. ACC 호스피스 공동체는 “죽음 저편의 삶을 이 세상에서 누리는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현장”을 향하고 있다.

일상 속 영성을 만날 수 있는 곳, ACC 호스피스

- 이진명 (호주 호스피스협회 봉사자)

지나온 삶의 걸음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나의 계산으로 볼 때 될 것 같은 일, 가능할 것 같은 일을 하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번에 호주에 오는 준비를 시작하면서는 “주님, 가기가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한 걸음씩 내딛겠으니 주께서 가게 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가게 된다면 호주에서의 시간도 주께서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다.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 2월에 시드니 땅에 발을 디뎠고 3월의 어느 날, 같이 사는 언니 집에 놓인 교민잡지에서 우연히 보게 된 봉사자 모집 광고를 통해 ACC 호스피스를 알게 되었다. 번역봉사를 하고 싶다고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 봉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기도모임도 콘서트도 참석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조용히 번역일만 하고 싶었는데 통역 쪽으로도 섬길 수 있는 일이 있는 것 같아 모임에도 몇 번 나가게 되었다. 7월에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이 글을 쓰게 되어 하나님께서 짧은 호주 생활을 잘 정리하고 돌아가라는 뜻으로 알고 시드니에 있는 동안 부어 주신 은혜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무슨 이유 에서인지 집 한 켠에 놓여있던 몇 달 전 발행된 교민잡지를 들춰보았는데 거기 있는 번역 봉사자 모집 광고를 보게 된 것부터 감사의 제목이었다. 또한 차가 없어 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는데 기도 모임 후 매주 방문하는 Baptist Care가 바로 학교 옆이어서 양로원 방문 후 걸어서 학교에 올 수 있어서 또한 감사했다. 몇 번의 기도모임 참석을 통해 봉사하시는 분들을 가까이에서 뵈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한 부분이었다. 기도 전에 매주 성경을 한 장씩 읽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말 그대로 은혜로웠다. 각자 처한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말씀을 읽고 나누는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일상에서 믿음을 실천하고 사시는 분들인지 알 수 있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이야기하실 때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누시는 부분이 인상적이었고 깊은 울림이 되었다. 또한 나눔 끝에 그 날의 본문을 정리해 주시는 목사님의 멘트도 늘 은혜가 되어 마음 속을 맴돌았다. 공동체로 함께 오랜 기간 말씀으로 교체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 지 느낄 수 있었다.

편집실_호주호스피스협회

요한복음 2장을 읽은 날에는 각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두 함께 나누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나누게 하셨다. 혼자서 생각하면 그냥 잊혀질 목상이었는데 나눔을 통해 구체화되고 정말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 나눔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이날 목사님은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신 이야기를 통해 ‘난감한 일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셨다. 사실 호주에 와서 짧은 시간이지만 공부 너무 힘들고 어려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가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위로가 되어 마음이 편해졌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생겼다.

콘서트 사회를 해보라고 하셨을 때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라 괜히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면 어쩌나 하는 생각과 그 다음 날 있는 시험도 염려되어 고사하고 싶었지만 내 생각과 걱정을 버리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하게 되었다. 콘서트 참석을 통해서 모두 한 마음으로 척박한 땅을 일구어 나무를 심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양로원 내 공간이 원래 공연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장소에 따라 변수도 많고 어떤 예상 못했던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도 모두가 웃으며 적재적소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러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시는 분들이 대단하게 느껴졌다. 선교여행을 다녀오고 단발성 행사를 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매주 시간을 내어 꾸준히 기도하고 지속적인 콘서트를 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일상에서 섬김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 가까이서 보니 온 몸으로 섬김의 삶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떠올랐다.

이제 나는 짧은 시드니 생활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돌아간다. 살면서 했던 작은 경험도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사용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한국에 간 이후 나의 삶은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하다.



위) 암환우와 함께 바닷가 걷기-Cronulla Beach 로 소풍 가는 기차 안
가운데) 제23차 콘서트- 환상적인 부채춤 김경옥(Fan Dancer)봉사자
아래) 드라마치료: 인성실, 송정희 박자영 사비나양 활의범 김소미 신경아 이금귀 김장대

ACC where you can meet daily spirituality

- Jinmyung Lee (ACC Hospice Volunteer)

When I looked back on my path of life, I realized that with my mouth I believed in God but my hearts were busy with doing something relying on my own strength and I did not even try for something which seemed impossible by my judgement. Hence, from the starting point, I asked God, "Lord, the situation is not good. I just follow your lead. If you allow me to go to Australia, I can go. If you let me for my studies, please guide my life there, too."

Thanks to his guiding hand, I and my family safely arrived at Sydney in February. One day in March, I happened to read an ad for volunteering from ACC Hospice in a magazine for Koreans in Australia. I contacted Reverend JangDae Kim and started translation volunteering, attending several Monday Prayer gatherings and Nursing Home Visit Concerts as well. At first, I just wanted do translation tasks but he encouraged me to join other gatherings and I accepted. I am returning to Korea in July, so I think this writing would be a good chance to retrospect my short life in Sydney, thanking God for the grace that He poured for last five months.

My list of gratitude started from the moment that I opened and read a magazine published a few months ago in the corner of my friend's house. In that very magazine, I met the ad for translation volunteering for ACC Hospice. Moreover, I had to use public transportation because I did not drive, but thankfully the Baptist Care, where we visited every Monday after the prayer gathering, was right next to the university I attended, so I was able to walk to the school after visiting the nursing home. I was also grateful to see closely those who served ACC Hospice missionary through several prayer sessions. It was literally gracious to read one chapter of the Bible and share the grace they received every Monday before prayer. The situation and environment every volunteer had different, but I was able to know how hard they lived by faith and practiced faith in their daily lives in reading and sharing the Word. When I listened to what they shared for the part I did not realize, it deeply impressed me and evoked profound empathy. More importantly, at the end of sharing, the Reverend gave brief remarks summarizing the passage of the day and that part was so meaningful and let me ponder again and again in my life. I could feel how precious it was to share each other's feeling and grace and to encourage each other as one community for a long time.

On the day when we read John 2 together, we shared taking turns what God is like to each one of us. God let me share 'God with me all the time, Emmanuel'. If I did not talk about it, the grace God gave me would have disappeared but thanks to the power of sharing, I could remember what I confessed and could walk with God consciously. On that day, the passage was about a wedding at Cana and the Reverend said, "When trouble happens, miracles can come." At that time, my study was so challenging and I was getting tired of my study physically and mentally. Through these God's words, I could gain strength again and had expectation that God would use me.



위) 기타 연주(안성진-장로교신학대학 신대원 재학)
아래) 손뼉치기 치료현장(리더-채송아 봉사자)

When I was asked to preside at a nursing home visit concert, I was worried about what if I made the atmosphere awkward because I had never done it before and there was concern for my exam scheduled the following day. In spite of all these concerns, God let me obey willingly with my thoughts and worries behind. While I joined the concert, I thought that every volunteer was committed to serving others. The venues for the concert were not actually made for the performance, so there could happen some problems that we did not expect all the time. Nevertheless, they made miracle from scratch, devoted to their own role for the performance. I could see clearly how they were great as they depended solely on God and went there to preach His love. Everyone can go on a mission trip and participate in a one-off event, but it is not easy at all for anyone to spend regular time praying for those who are weak and serving others with what God gave them for a long period of time. As I saw their lives of faith nearby, it reminded me of Jesus who served in the lowest place and showed servant leadership in person.

Now after a short life in Sydney, I am coming back to Korea saying good-bye to Australia. I am so grateful that I have full of expectancy how God, who has been faithful to me and used my small experience for his glory, will work and make a way in my life.

History of ACC Hospice

18/6/2018. 23rd Hospice Concert (Uniting Thomas Roseby Lodge, Marricville, NSW)
 2/6/2018. Excursion –Beach Walks with Cancer Patients (Cronulla Beach)
 7/5/2018. 22nd Hospice Concert (Dorothy Handerson Lodge, Baptist Care, Macquarie Park, NSW)
 16/4/2018. 21st Hospice Concert (Meredith House Nursing Home, Strathfield NSW)
 12/3/2018 20th Hospice Concert (Woodlands Nursing Home, Cherrybrook, NSW)
 22/2/2018 19th Hospice Concert (-Special Invitation-(Shalom Center, Baptist Care, Macquarie Park, NSW)
 1/2/2018 Sent to missionary to prepare for the establishment of Melbourne Hospice (Pastor Soon Hee Lee)
 23~25/1/2018 1th Hospice Visiting Chaplain Training
 22/1/2018 18th Hospice Concert (Estia Health Nursing Home, Ryde BSW)
 20/1/2018 "500th Walking Along the Beach with Cancer Patients" event (Clifton Gardens Reserve, Morella Rd., Mosman)
 18/12/2017 17th Hospice Concert (The Gracewood Centre, Baptist Care, Kellyville NSW)
 4/12/2017 Award for ACC Volunteer's Activities from the Korean Australian Community Support Incorporation
 27/11/2017 2nd Checed Healing Performance (Ainsley Nursing Home, Burwood, NSW)
 20/11/2017 1st ACC Volunteer Conference (St Philip's Anglican Church, Eastwood, 4:30 pm)
 (Winners of Certificate of Appreciation from Baptist Care: Keum Kui Lee, Jung Hee Song)
 20/11/2017 16th Hospice Concert (Southern Cross Aged Care, Marsfield, NSW)
 30/10/2017 15th Hospice Concert (St Catherine Aged Service, Eastwood NSW)
 23/10/2016 First Checed Healing Performance (Linburn Nursing Home, Strathfield)
 25~29/9/2017 Third Korea-Australia Hospice Volunteer Training and First Aid Training
 25/9/2017 "14th Hospice Concert (Shalom Centre, Baptist Care, Macquarie Park)"
 2/9/2017 Special guest speaker, Dr. Tae Sik Jung (Clifton Gardens, 1pm)
 25/8/2017 Chairperson/Public Officer Rev Jang Dae, Kim signed agreements (MOU) with Ko Shin University Hospital
 14/8/2017 13th Hospice Concert(Uniting Thomas Roseby Lodge, Marrickville)
 12/8/2017 5th SICA General Meeting and 1th ACC General Assembly
 10/7/2017 12th Hospice Concert (Jesmond Aged Care, Strathfield)
 12/6/2017 Chairperson/Public Officer Rev Jang Dae, Kim signed agreements (MOU) with Anyang Sam Hospital
 5/6/2017 11th Hospice Concert (Columbia Aged Care, Strathfield)
 8/5/2017 "10th Hospice Concert (Cooinda Court, Baptist Care, Macquarie Park)
 25/4/2017 ~ 27/4/2017 Second Korea-Australia Hospice Volunteer Training: Kye Myung University, Dong San Hospital Hospice
 10/4/2017 9th Hospice Concert (The Gracewood Centre, Baptist Care, Kellyville)
 20/3/2017 8th Hospice Concert (Meredith House Nursing Home, Strathfield)
 20/2/2017 7th Hospice Concert (Woodlands Nursing Home, Cherrybrook)
 20/1/2017. 6th Nursing Home Visit Concert (Estia Nursing Home, Ryde)
 31/12/2016. 1st Hospice Mother's Award (Prize Winner: Keum Gui Lee, Ji Soo Jang, Jung Ok Jang)
 22/12/2016. 5th Nursing Home Visit Concert (Baptist Care, Shalom Centre)
 3/12/2016. Year End BBQ Party (Manly Beach)
 30/11/2016. 4th Nursing Home Visit Concert (Summer Hill Nursing Home)
 15/10/2016. Picnic (Breakheath Frower Festival)
 28/9/2016. 3th Nursing Home Visit Concert (Baptist Care, DHL Centre)
 26/9/2016~6/10/2016 First Korea-Australia Volunteer Training
 First Aid Training (18 Trainees)/Graduated 13 people among 24 students
 3/8/2016. NSW Fair Trading Registry (INC1601021)
 Chairperson / Public Officer (Representative): Jang Dae Kim
 Treasurer: Jung Hee Song, Secretary: Soon Ja Sung, Audit: Cheol Ho Cho

<< ACC 호스피스 알림 >>

ACC 호스피스에서는 암 환우와 그의 재환을 돕기 위해 봉사자들과 매주 토요일 바닷가 걷기를 하고, 또한 암환우와 그의 가족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 특별중보기도회를 갖고, 예약 상담 및 전화 상담, 그리고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환우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찾아가는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CC 호스피스는 모든 회원이 자원봉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8)

● ACC 호스피스의 발자취

- 2018.6.18 제23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Uniting Thomas Roseby Lodge, Marricville, NSW)
- 2018.5.07 제22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Dorothy Handerson Lodge, Baptist Care, Macquarie Park)
- 2018.4.16 제21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Meredith Nursing Home, Strathfield)
- 2018.3.12 제20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Woodlands Nursing Home, Cherrybrook)
- 2018.2.22 제19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Shalom Centre, Baptist Care, Macquarie Park)
- 2018.1.22 제18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Estia Health Nursing Home, Ryde)
- 2018.1.20 제 500회 암 환우와 그의 가족과 함께 바닷가 걷기 자축행사 (장소: Clifton Gardens Reserve, Morella Rd., Mosman NSW)
- 2017.12.18 제17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Gracewood Centre, Baptist Care, Kylliville)
- 2017.12.4 자원봉사 단체상 수상 (호주한인공익재단(KACSI) 주최)
- 2017.11.20 제1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대회 (Baptist Care 로부터 수상자: 송정희, 이금귀)
- 2017.11.20 제16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Southern Cross Aged Care, Marsfield)
- 2017.10.30 제15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St Catherine Aged Service, Eastwood)
- 2017.10.23 제1차 헤세드 힐링 전인치유 공연 (Lirburn Nursing Home, Strathfield)
- 2017.9.25 제3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연수 교육 (특별초청강사: 이종욱 교수) 및 First Aid Training(전체 50명 참가 30명 수료(제3기 21명, 제1기 9명)(First Aid (CPR) Training: 29명 자격취득)
- 2017.9.25 제14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Shalom Centre, Baptist Care, Macquarie Park)"
- 2017.9.2 특별초청강사: 방사선 전문의 정태식 박사 (Clifton Gardens, 1pm)
- 2017.8.25 부산복음병원과 호주호스피스협회(ACC) 협약 체결(MOU)
- 2017.8.14 제13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Uniting Thomas Roseby Lodge, Marricville)
- 2017.8.12 제1차 호주호스피스협회(ACC) 정기총회
결의사항:
"Committee"의 한글명칭은 "상임운영이사회"로 하고, 그 구성원의 직위에 대한 한글명칭과 임원은 아래와 같이 정함.
대표(Chairperson/Public Officer): 김정대;
사무총장(Treasurer): 송정희;
부대표(Secretary): 성순자; 협동사무총장 및 감사(Audit): 조철호
- 2017.7.10 제12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Jesmond Aged Care, Strathfield)
- 2017.6.12 안양 샘 병원과 호주 호스피스 협회(ACC) 와 협약체결 (MOU)
- 2017.6.5 제11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Columbia Aged Care, Strathfield)
- 2017.5.8 제10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Cooinda Court, Baptist Care)
- 2017.4.25 제2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대구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4.27
- 2017.4.10 제9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The Gracewood Centre, Baptist Care, Kellyville)
- 2017.3.20 제8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Meredith House Nursing Home)
- 2017.2.20 제7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Woodlands Nursing Home)
- 2017.1.20 제6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Estia Health Nursing Home)
- 2017.1.9 ACC Home Page 개설(www.australianhospice.com.au)(영문홈페이지)

- 2016.12.31 제1회 호스피스 어머니 시상식 (수상자: 이금귀, 장지수, 정정옥)
- 2016.12.22 제5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Baptist Care, Shalom Centre) (성탄축하연합예배:ACC-Baptist Care)
- 2016.11.30 제4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Summer Hill Nursing Home)
- 2016.9.26 제1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전체 24명 참가(13명 수료)
특별초청강사: 전재규(대구동산병원/의사/한국호스피스협회 설립자/본회 고문)
김경환(대구동산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15년경력)
- 2016.9.28 제3차 추수감사주간 음악회(Baptist Care, DHL Centre)
- 2016.8.20 총회(장소: 모지식당(Strathfield) 오후3시)
결의사항: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ACC) ABN: 17 110189 115 (호주호스피스 협회)설립 인준: 호주 호스피스 협회(ACC) 초대 임원(Committee Member) 선임 Chairperson/Public Officer(대표의장): 김정대 Treasurer(사무총장): 송정희, Secretary(부대표): 성순자, Audit(협동사무총장/감사): 조철호
- 2016.8.3 호주호스피스협회(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 ABN 17 110 189 115) ANCC 및 NSW Faire Trading 비영리단체 등록

이전 연혁은 홈페이지 참조

● 특별기도 및 후원 요청

1. 휠체어 차량: 암 환우를 모시고 바닷가 걷기 참여하여 재환을 돕고자 합니다.
2. 부역사를 가능한 전용 사무실 임대: 암 환우에게 무료 한국 건강음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암환우의 필요를 도와 드립니다

암환우 상담은 요청시 언제나 가능하며 가정 방문도 가능합니다.
[정기상담] • 일시: 월, 화, 수요일 10:00~16:00

- 장소: 본회 사무실
- 문의: 0430 370 191 / 0416 758 272 (전화로 상담시간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헤세드 힐링 전인치유 자원봉사자 모집

호주호스피스협회(ACC)에서 모든 봉사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헤세드 힐링 전인치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 드라마 치료 재능 봉사자
- * 미술치료 봉사자: 매주 너스힘을 방문하여 환우들에게 미술로 내적치료 봉사하실 분
- * 음악치료 봉사자: 악기(피아노, 기타 등)로 너스힘 환우들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봉사하실 분
- * 영어통역봉사자: 매주 너스힘을 방문하여 호스피스 봉사 팀과 타국 환우들을 보살필 수 있는 봉사자
- * 그 외 자신이 가진 재능을 연약한 이웃과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분

● 호주 시드니 호스피스와 해외 협력기관

- 부산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복음병원 호스피스 센터 (대한민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장거리 박사의 사랑과 헌신이 담긴 기독교 병원)
- 대구 동산 호스피스회 (1899년에 미국 선교사 존슨 의사에 의해 제정원(濟寧院)이란 이름으로 설립된 대구 최초의 근대병원)
- 안양 샘 병원 (한국 기독교 의료선교의 요람. "홍병을 치유하지 말고 사람을 치유하라" 뜻 고철 철병은 없다. 다만 뜻 고철 사람이 있을 뿐이다")

● 암 환우와 그의 가족과 함께 바닷가 걷기

- 대상: 암환우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장소: Circular Quay 3번 부두
- 준비물: 도시락, 물
- 연락: 0405 317 843(송정희 리더)/ 0430 370 191

● 제24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 장소: Columbia Aged Care Services, 64 Albert St. Strathfield, NSW
- 일시: 2018년 7월 9일 (월요일) 오후 2시

소식지 ACC 회계자료 (5 / 2018)					
수입			지출		
이름	금액	항목	항목	금액	비고
Jangdae Kim	110	MEMBERSHIP FEE	통신비	84.86	
SoonJa Sung	110	MEMBERSHIP FEE	인쇄 홍보 비	568	
Elhis Kim	10	MEMBERSHIP FEE	차량유지비	105	
Sarang Kim	10	MEMBERSHIP FEE	관리비	220	
T- shirts	30		식대 및 부식비	141.9	
Dong Sik Son & Yi Jin Kim	800	Donation	경조비	400	
Gyeong Hee Lim	50	Donation	행사 및 세미나	677.4	가정의 달 wooywoy 바닷가걷기 행사 및 월요중보기도 야외기도
Gyeong Hee Lim	50	MEMBERSHIP FEE	사무용품	5.55	
Hyung sun Lee	40	MEMBERSHIP FEE	회계사.변호사	0	
Ok Hee Kim	10	MEMBERSHIP FEE	보험료	0	
Yong sook Kim	10	MEMBERSHIP FEE	water	0	
Jung muk Lim	10	MEMBERSHIP FEE	First aid	0	
Soon Do Yang	60	MEMBERSHIP FEE	기타	0	
Soon Do Yang	40	Donation	Total	2202.71	
Harp group	50	Donation			
Jeung Bun Kang	50	Donation			
DHL 목사님	20	Donation			
Sica to Acc	1500	Sica to Acc			
Young Do Byun	20	MEMBERSHIP FEE			
In Hee Lee	20	MEMBERSHIP FEE			
Jin Kim	50	MEMBERSHIP FEE			
Chu Ja Chae	50	MEMBERSHIP FEE			
Kwang Hee Yoo	50	MEMBERSHIP FEE			
Hyun Seen Kim	40	MEMBERSHIP FEE			
Tae Sun Oh	120	MEMBERSHIP FEE			
Sunny Chae	50	MEMBERSHIP FEE			
Moon Ja Park	100	Donation			
Nam Jin Choi	10	MEMBERSHIP FEE			
Jun Hyun sook	10	MEMBERSHIP FEE			
Jong Soon Kim	100	Donation			
GNA Support	100	n 은 Donation			
ABC Education	150	w15 은 Donation			
STRATHFIELD	300	w15 은 Donation			
INTEREST	0.41	w15 은			
INTEREST	1.06	w23 은			
Total	4131.47				
*현물, 도네이션					
이금귀	50	떡 1Box			

- 본 회의 기부금은 호주정부세금감면혜택(DGR)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후원 계좌명(Account Name):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

Bank	BSB No.	Account No.
Westpac	032-069	537515
NAB	082-451	68-612-2677

* 정성어린 후원금은 ACC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주요 활동 (Scope of ACC Activities)

삶과 죽음이란 두 갈래 길에서 어떤 치유가 지혜로운 선택일까 같으며 힘들어 하는 환우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의 필요를 조금이라도 돕고자 합니다. 환우의 신앙과 무관하게 그들이 필요하다면 저희 호스피스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환우의 필요를 돕기도 하지만 할 수 있다면 환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면서 지혜로운 방향을 선택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다 나은 치유의 효능을 위하여 인간을 지으신 창조원리에 의한 치유방법을 권장하고 있으며 실제 치유되고 있는 많은 극복자를 소개해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을 강요하지 않으나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바른 삶이 치유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암 환우와 그 가족을 섬깁니다.
 - 가능한 범위에서 통역지원, 환우와 함께하기, 환우와의 상담지원, 환우와 가족을 위한 필요 돕기 등등
2. 암환우의 치유에 도움을 드립니다.
 - 투병중인 환우나 암을 극복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주선하여드립니다.
 - 암환우의 회복에는 심리치유가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하여 암환우와 함께 웃음치유, 미술치유, 음악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암환우와 가족들을 즐겁게하여드립니다.
3. 암환우와 그의 가정의 회복을 도와 드리며 교인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 암환우와 함께 바닷가 걸기를 실시함으로 연약한 암환우의 건강이 회복되며 그의 가정이 소망으로 회복되는 되는데 기여합니다.
 - 암환우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바닷가 걸기를 함으로 교민사회에 봉사정신을 고취시키고 교민 사회에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합니다.
4. 호스피스 자원봉사와 성경적 의학 교육
 - 약한 자를 돕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은 성경적인 원리에 의하여 건강을 증진하는 기법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실질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기교육과 비정기 교육으로 실시합니다.
5. ACC 홍보활동
 - ACC 활동의 홍보는 정성어린 교인들의 기부금과 교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하여 이뤄지고 있습니다.
 - 매월 정기적으로 "호스피스 투데이(Hospice Today)"란 명칭으로 월간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 암환우에게 새소망을 주고 교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년 1회이상 특별 공연을 실시합니다.
6. 임종과 장례지원 및 남은 가족을 지지해드립니다.
 - 형편에 따라 감소한 장례가 치러지도록 도와 드립니다.
 - 환우가 떠난 후 남은 가족들이 속히 슬픔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We strive to meet the needs of patients who are standing at the crossroads of life and death, and help make a wise choice for a good treatment and healing.

1. We serve cancer patients and their family.
 - We provide translation service, counseling and other helps for the patient and their family
2. We help with the cancer treatment.
 - We help patients meet others who are fighting with cancer or have already won.
 - Psychological treatment is a great help for the patients. Through various programs of laughter, drama and music, we help the patients stay happy.
3. We help the community be aware of health improvement.
 - The patients and volunteers (and community) walk the beach together so that the volunteers (and community) improve their health at the same time.
4. Hospice and Creation Medicine Education
 - Attitude of helping the weak in hospice and the biblical principle of physical health improvement are encouraged through various education programs.
5. Liaising with the community - We work together with the community.
 - We publish monthly magazines, "Sydney Hospice."
 - We hold annual events to give a new hope for the patients and raise a health awareness in the community.
6. We support the deathbed and funeral and the bereaved family.
 - We help look for budget conscious funerals.
 - We help the bereaved family recover and get back to normal life.



◎ 발 행 처: ACC 호스피스 협회
 • 비영리 단체등록법인(ACNC): ACC(ABN:17 110 189 115)
 주소(Add.): PO BOX 615 Lidcombe, NSW 1825
 • Mob: 0430 370 191, 0416 758 272
 • E-mail: australianhospice@gmail.com
 or sydneyhospice@gmail.com
 • Web: www.australianhospice.com.au(Eng) /
 www.sydneyhospice.com.au(Kor)
 • 발행날짜(Date of Issue): 2018년 6월 25일
 • 발행(Publication)/편집(Edition): 김장대(Rev. David Kim)
 • 인쇄(Printing): JC 우리인쇄소(admin@jcprinting.com.au)